

3》창간기념 설문조사



4,5》기부금 1000억 목표, 넘어야 할 산 많아



6》시간강사 임금, 3년째 동결



행복기숙사 임시 사용승인 만료 임박 11일 학교-구청 협의 ... 대책은 '아직'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서울】행복기숙사 임시 사용기한이 오는 8월로 만료된다. 학교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오는 8월까지 정문 앞 도로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르면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기숙사가 작년 8월에 받은 1년 간의 임시사용승인 조치는 오는 8월 23일을 기해 만료된다. 임시 사용승인이 연장되거나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우리학교는 행복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숙사생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지현(식품영양학 2018) 씨는 “당장 잘 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이재혁(무역학 2017) 씨는 “학생들은 학교가 잘 하겠거니 믿고 있는 것이다”라며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행복기숙사 행정실 윤필영 계장은 사용승인이 반려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윤 계장은 “건물에 큰 문제가 없으니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사용허가가 안 나면 행정처분 절차는 따라가겠지만 학생들의 주거문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동대문구청 건축과 경한수 과장은 “아직 학교나 법인 측과 합의한 바가 없다”며 “구청이 뭔가를 특별히 언급할 만한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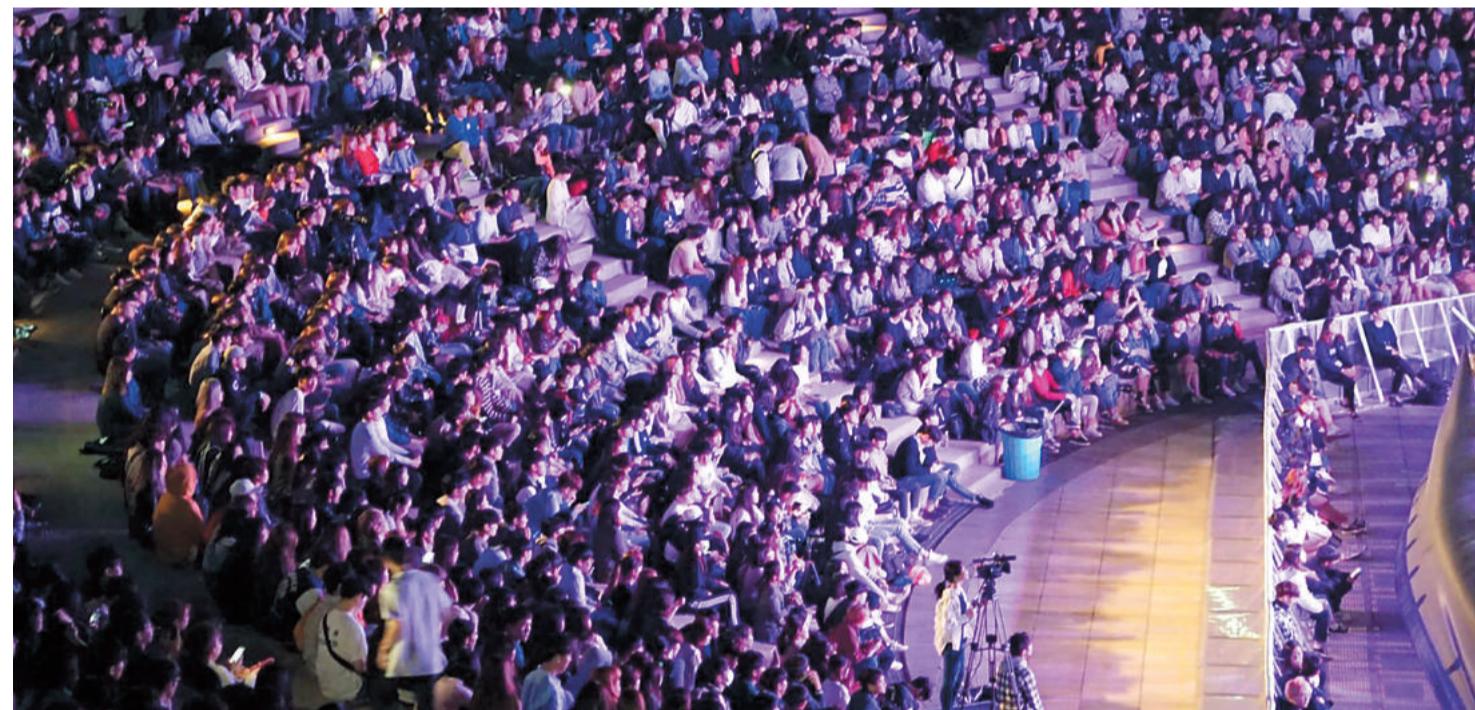
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건축 신청 당시에는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라고 했다가 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건축인허가서와 상충하기 때문에 경희대로와 관련한 논의는 신청인인 학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6년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동대문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경희대로 부지가 법인의 사유지이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경희대로 부지를 사유지로 인정하며 동대문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그간의 부당이득금 14억여 원과 매년 약 1억 4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판결 이후 동대문구청은 이를 지불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인 심의기획실 조병렬 계장은 “동대문구청과 함께 도로사용료

를 지불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자고 이야기했으나 동대문구청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며 “동대문구청 측은 경희대로를 기부하든지 아니면 아예 부당이익금과 도로 사용료 전부를 받지 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계장은 “작년 논의와 다를 바 없어 현재까지도 구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학교와 구청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정서영 부총장, 총무 관리처장과 동대문구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에 대해 총무관리처 정진봉 처장은 “원만하게 양쪽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면서도 상황 개선 조짐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국제】축제 첫날인 지난 8일 학생회가 공연관람 특권을 누렸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학생들은 “안전관리를 펜스 안쪽에서 하나”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당시 가요제를 진행했던 5개 단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특권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김지원 기자)

총학, 축제 주류 판매금지 수용, 단대 학생회는 ‘울상’

권민경 기자 kmkg2199@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통해 축제에서 주류 판매금지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주류 판매는 금지됐지만 외부에서 자신이 마실 주류를 사오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안건이 의결된 것은 교육부를 통해 전달된 관세청 공문 때문이다. 지난 1일 교육부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학에서 주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라”고 전했다. 또한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후 서울캠은 지난 4일 학생지원센터, 총무과, 관리과 직원과 학생 대표자가 모여 논의를 나눴다. 본부는 “위법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류를 매매하는 것을 방지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서울캠 비대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비상 중운위를 개회해 11인 중 10인의 찬성을 받아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제캠 총학도 지난 4일 긴급 중운위를 소집해 만장일치로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제캠 총학은 “캠퍼스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우리학교 축제를 지역 축제로 전환하거나 임시 주류 판매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웠다”며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축제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노점에서의 주류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지역축제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예외적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중운위에 참석한 각 단과대학 대표자는 이미 주류 공동구매를 진행해 손해를 면하는 것은 힘들다고 토로했다. 호텔관광대학 학생회 김영우(Hospitality 경영학 2016) 회장은 “단과대학 차원의 축제가 있는데 공문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라며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월ل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우리에게 필요한 통일은?
이창희(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7면



울에 동문 징검다리가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 이들 대학 동문은 후배의 사회진출에 큰 디딤돌이 된다. 하지만 우리대학 상황은 다르다. 우수한 동문조차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사회라는 냉정한 개울에서 뛰어내려 있는 동문을 징검다리 삼아 후배들이 한발짝 앞으로 나가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권 회장은 이를 방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회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뛰어나온다”며 “우리대학 동문회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권 회장은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학교법인 경희학원 감사를 맡았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총동문회관에서 만난 권 회장은 ‘후배’라는 단어로 말문을 열었다. 중국 고전문학 〈서유기〉를 이야기하며 권 회장은 “손오공이 요괴로부터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그는 주변 인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를 해쳐나갔다”며 “서유기가 품고 있는 교훈처럼 총동문회는 우리 후배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늘 곁에 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후배의 사회진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총동문회 주최 취업박람회가 그 중심이 될 예정이다. 권 회장은 “모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후배들의 취업정보, 취업알선, 취업훈련 등을 정례화 할 것”이라며 “현장의 소리를 많은 들은 동문을 초청해 후배의 취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동문회와 학교가 함께 재학생의 취업을 돋는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문회와 모교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희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30만여 명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의 기틀을 마련해 개교 100주년을 향한 동문회관 재건립 기초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권 회장의 마지막 말 또한 후배로 맺어졌다. “후배들이 동문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동문회도 후배가 선배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선후배가 이어졌으면 한다.”